

“못난 세 아들 사람 만들어 놓을게요”

‘살벌한 인생수업-최고의 한방’ 배우 김수미

MBN 새 예능 첫 선
탁재훈·이상민·장동민
만만해서 내 맘대로 뽑아
한가족이 돼서 공연하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줄 것

“이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세 명을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이야.”

MBN 새 예능 ‘살벌한 인생수업-최고의 한방’을 통해 갑자기 장성한 세 아들을 얻게 된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69)는 이렇게 말하며 결별 웃었다. 세 아들은 탁재훈(51), 이상민(46), 장동민(39). 면면을 봐도 김수미의 맏손 호통이 예상되는 멤버 구성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김수미는 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세 아들에게 인생 수업을 하면서 또 함께 여러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게 된다.

김수미는 이날 중구 장충동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작품 선택을 할 때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각오로 준비한다”라고 웃을 뻔했다.

그는 “최고의 한방”은 전부 내가 캐스팅했고 기획도 내가 했다”라며 “우리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족이 돼서, 공연도 하고 일해서 돈을 모아 학자금 대출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대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수미는 오랜 방송 활동으로 ‘아들 후보’가 많았을 텐데도 세 명을 특별히 낙점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만만해서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의외로 낫가림이 심해요.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말 가족 같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갑자기 영감이 와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바로 모일 수 있는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째 재훈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발력 있는 방송인이야. 그리고 저하고 일하면서는 늦은 적이 거의 없어요. 누가 탁재훈이 지각한다고 했어? 애가 음식 타박을 좀 해서 그렇지...”

김수미가 과거 ‘지각 논란’을 여러 번 빚은 탁재훈을 겨냥하자 장내가 웃음이 났고 탁재훈은 “어머니, 제발 그만 하세요”라고 부끄러워했다.

김수미는 이상민에 대해서는 “너무 진지해서 아직은 좀 어렵지만 섬에 촬영 가서는 남자라도 보이더라”고 농담했고, 장동민에 대해서는 “가장 든든한 아들”이라고 애정을 표현했다.

‘장남’ 탁재훈은 “김수미 선생님과는 워낙 오래, 자주 뵈는 사이라 제가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훈훈한 가족애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능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웃음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둘째’ 이상민은 ‘진지함’을 말했다고 스스로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 한 말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려 한다.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보약 같은 것”이라며 “선생님께서 좋은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아들들의 말도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했다.

‘막내’ 장동민은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면서도 재미, 웃음 요소도 많다”라며 “시청자들도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 생각이 나실 것”이라고 밝혔다.

MBN은 이날 ‘최고의 한방’ 제작발표회에 앞서 하반기 프로그램 라인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고의 한방’을 비롯해 개그맨 김병만과 윤택이 미지의 밀림에서 원시 체험을 하는 ‘오지go(고)’, 주부들 노래 경연인 ‘보이스퀸’, 실황민인 MC 송해가 고향 땅 밟기 프로젝트에 나선 다큐멘터리 ‘송해야 고향가자’, 오피스 코미디극 ‘레벨업’, 미스터리 멜로극 ‘우아한가’ 등이 발표됐다.

5개월 전 KBS에서 MBN으로 이적한 박태호 본부장은 “일선에서 제작해온 경험과 노하우 바탕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위와 같은 하반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냈다. MBN의 새로운 시도를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달 착륙 50년 다큐 ‘달로 날아가다’ 방송

EBS 1TV 18일 밤 12시50분

EBS 1TV는 18일 밤 12시 50분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특선 다큐멘터리 ‘아폴로 우주선, 달로 날아가다’를 방송한다고 16일 예고했다.

50년 전인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이 달 표면에 착륙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인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탐사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확정짓는 사건이었다.

아폴로 11호의 성공은 한순간에 이뤄진 게 아니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달 착륙을 위해 단계별 미션을 수행했고, 1968년 12월의 아폴로 8호 미션은 아폴로 11호에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됐다. 방송에서는 아폴로 11호를 가능케 했던, 아폴로 11호보다 더 대담했던 미션, 아폴로 8호를 돌아본다.

아폴로 8호는 나사(NASA) 최초의 유인 달 탐사 미션이었다. 새턴5 로켓이 처음으로 사용됐고,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일을 처음으로 유도 컴퓨터에 맡겼으며, 지구궤도를 벗어나 달 궤도에 진입한



것도 처음이었다.

아폴로 8호 미션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우주비행사들과 관제센터 엔지니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

다큐멘터리에서는 아폴로 8호에 탄 3명 우주비행사와 관제센터에서 미션을 지켜본 동료 우주비행사, 엔지니어들의 인터뷰, 다양한 자료화면을 통해 격동의 1968년을 마무리한 아폴로 8호의 여정을 만난다. /연합뉴스

투니버스, 새 웹드라마 ‘조아서 구독중’ 방영

CJ ENM 투니버스는 새 웹드라마 ‘조아서 구독중’을 다음 달 9일부터 방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크리에이터 회사 ‘모래컴퍼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10대 크리에이터들의 좌충우돌 일상을 그린다.

투니버스가 직접 선발한 키즈스타 ‘투니스타’로 뽑힌 7명과 아이돌 그룹 동키즈 멤버인 문익과 재찬이 출연한다. 여주인공 조아서는 투니스타 윤혜림이, 그의 친구 리아는 김리원이 맡았다. 남주인공 서준과 강현으로는 문익과 재찬이 나선다. 연출을 맡은 김용만 PD는 “최근 어린이

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그들만의 고민과 문화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8월 9일 오후 5시에는 공식 유튜브에서, 같은 날 오후 9시 투니버스 채널에서 1회를 공개한다. /연합뉴스



윤혜림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야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불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아티스틱 스윙 팀 프리 예선>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팔도밥상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버(재) 50 빠사 메카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숲!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라크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야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달 착륙 50주년 특선 다큐 8일 간의 위대한 여정	10 썸바이블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형
07:00 로보카 폴리	13:00 지식채널e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여름날의 꿈 캄보디아 3부 땅의 아이들>
08:00 똥똥똥 유치원1~2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8:30 몬가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이곳은 신선동 3부 어찌든 만날 수 있을까!>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원스(재)	21:50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똥똥똥 유치원1~2(재)	24:50 글로벌 특선다큐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7일 (음 6월 15일 乙卯)

子 36년생 변경하려 하지 말라. 48년생 헛고생 하게 될 것이다. 60년생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니 인행을 삼가라. 72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84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 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55, 68	午 42년생 깊이 성찰한 후에 결정을 내려라. 54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66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78년생 천천히 실행되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90년생 노력 앞에서는 어떠한 화도 비켜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85
丑 37년생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49년생 작은 현상을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61년생 우려하여 왔던 바는 아니니 부담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73년생 작은 이익을 꾀하려다가 명예마저 실추 될 수 있다. 85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심감이 크겠다. 행운의 숫자 : 12, 20	未 43년생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55년생 자리 잡게 될 것이다. 67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루고 볼 일이다. 79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살펴야야 한다. 91년생 구대의연합을 벗어나 새롭게 전개 되는 국량이나라. 행운의 숫자 : 82, 54
寅 38년생 소홀히 해 왔던 점이 없는 지 살펴 볼 일이다. 50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62년생 순리에 벗어난다면 불행을 자초 하리라. 74년생 설마 했다가 크게 당할 수도 있는 면모다. 86년생 과감한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0, 47	申 44년생 균형과 실용이 중할 때이다. 56년생 마음에만 담아두고 발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최선을 다 해왔는지 돌아볼 일이다. 80년생 분명한 입장에 서서 잘차대로 이행함이 순리이다. 92년생 급작스러운 단절과 변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8, 52
卯 39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 늦지 않을 것이다. 51년생 일관된 자세로 지속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 63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 될 것이다. 75년생 계속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87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효과도 굉장하다. 행운의 숫자 : 57, 91	酉 45년생 앞당기어 벌여줄 수도 있다. 57년생 돌발적인 국세를 이리저리 모르니 침착해야 한다. 69년생 새로운 판세의 빛이 비추고 있으니라. 81년생 넉넉하게 배분하면 인심을 잃지 않는다. 93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행운의 숫자 : 39, 75
辰 40년생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다. 52년생 확실히 유지하고 있어야만 활용하게 된다. 64년생 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76년생 모색하다보면 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88년생 새로운 일에는 끼어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5, 80	戌 34년생 밤심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46년생 짜임새 있는 구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58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70년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82년생 단순한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88, 87
巳 4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53년생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일들이 저게 되리라. 65년생 이미 판세는 정해졌으니 아예 재를 두지 않는 편이 낫겠다. 77년생 부자연스럽다. 89년생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도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5, 33	亥 35년생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니니 지체하지 말라. 47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겠다. 59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두루두루 잘 살펴야겠다. 71년생 견주어 본다면 한눈에 쉽게 드러나리라. 83년생 막연히 부추기는 이들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17, 74